

# 마카오 선언

프란체스코 경제를 향하여, 아시시, 2020년 11월

마카오 성 요셉 대학의 마카오 리치 연구소 심포지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성찰의 종합,  
2020년 10월 15-16일

## 요약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에 대한 개념과 이상을 하나로 모으는 우리의 도전은 시대 현실에 대한 생각을 토대하고 경제 변화의 목표를 향한 생각과 행동을 파악하는 것이다.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모든 사람이 행동할 세 가지 이슈별 플랫폼을 제시한다.

### 1. 보조성의 경제학 (Subsidiarity Economics)

경제개혁의 보조성의 원칙은 공동체적 해법을 강조하고 커뮤니티의 기존 기관이 참여하는 대화와 자발적인 협력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나올 것임을 상정한다.

#### 보조성의 경제학을 장려하는 행동

##### 1. 신용 협동조합: 마이크로 बैं킹(소액 금융)의 개발.

소액 대출은 사회적 및 경제적 협력을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에서 빈곤층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2. 기술 개발자: 권리 박탈된 사람에게 발언권을 제공함.

아프리카 최초의 블록 체인 기업인 비트페사(BitPesa)와 탈중심화된 디지털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인 키바 프로토콜(Kiva Protocol)을 통해 아프리카의 혁신적인 사례를 볼 수 있다.

##### 3. 대기업: 기부와 투자.

대기업은 회사의 모든 계층 직원들의 자율권과 의사결정권을 지원하고 소규모 커뮤니티가 사회 및 환경적 도전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 4. 투자자: 윤리 또는 ESG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투자 기준의 활용.

개인과 지역사회가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투자를 한다. 이러한 기업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며 무역과 창업으로 인도한다.

## 2. 모든 이를 위한 복지 (Wellbeing for All)

**모두를 위한 복지 (Wellbeing for All)** 은 인종과 신념체계 혹은 피부색에 기반한 편견에 관계없이 우리시대 번영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전통적인 편견을 제쳐두고 문화와 국경을 넘어 연대의 비전을 말한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이러한 사명을 지키려면, 개인적으로 가깝고 소중한 사람뿐만 아니라 반드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실현을 강화해 나가는 전략을 실시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 모두를 위한 복지를 개발하려는 조치

#### 1. 기업: 진보적인 사회 기관으로서의 존재적 소명

「UN 비즈니스 및 인권 가이드 원칙」을 통해 복지를 증진한다.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평등과 존엄성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보호하고 촉진한다.

#### 2. 정부: '보다 더 개방적인' 국경과 기후 행동

난민의 곤경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국적 협력과 사실에 근거한 공론이 더 개방적인 국경 정책과 다국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난민과 관련된 논의를 변화시킨다.

#### 3. NGO: 교육과 혁신.

NGO가 직면한 도전은 빈곤계층과 소외계층의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는 해결책을 설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더 높은 수준의 협력으로 혁신을 해야 할 일이다.

## 3. 공동선의 기업가 정신 (Common Good Entrepreneurship)

시장 지향적인 경제는 시스템에 있는 대부분의 행위자가 탐욕과 과소비 본능을 자제하고 공동이익을 위해 투자와 소비(즉, 모두의 이익, 특히 취약계층과 같은 투자나 소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이익)를 선택해야만 공동이익을 이끌 수 있다.

### 공익에 도움이 되는 기업 정신을 실현하려는 조치

#### 1. 이사회: 투명한 거버넌스.

공동선을 향한 기업 경영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투명성, 법 준수 및 공공 책임, 내부 리더십 역량, 균형, 헌신 및 청렴성을 실천해야 한다. 이사회가 경제, 환경 및 사회적 거버넌스 자본인 총 가치 창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 2. 투자자: 윤리 및 ESG에 대한 헌신

부는 기관과 국민의 경제적 기반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다루기 위해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 3. 경영자: 공급사슬에서 사회정의의 위한 조치

기업조직의 경영자는 그들의 기업경영 정책이 직원과 공급업체에 인권, 사회 정의 및 생태계 보호를 존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 4. 마케팅 관리: 소비에서 의미 있는 소비로의 완성까지

마케팅 관리자는 마케팅의 기능을 과소비를 유도하는 것에서 사람들의 요구 및 욕구를 인해  
원만한 소비로 변화시키고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 그리고 이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할 것이다.

##### 5. 정부: 규제 및 과세 집행.

정부는 개인과 산업경제로 하여금 화석연료 의존도를 탈피하여 탄소배출 제로 경제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금까지의 정부는 기업 및 개인 자산  
창출자들의 세금 회피 체제의 독창성을 따라가지 못했고, 이로 인해 초국가적 금융거래 안에서  
세금 부과가 가능한 이익을 놓쳐왔던 것이다.

MRI 심포지엄은 인간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간파하였다. 개인 차원에서 이러한 의식의  
전환은 공동체와 기관으로 파급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 재앙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결정적 10년' (Decisive Decade)에 들어서면서 반드시 긴급 조치로 옮겨야 하고 취약계층이  
치러야 할 대가를 최소화해야 한다.

# 서론

##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통합적 발전을 실현하고 자연환경과 자원을 보호하며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가?

2020년 10월 성 요셉 대학교 Ilha Verde 캠퍼스에서 개최된 마카오 리치 연구소 심포지엄에는 27명의 강연자들이 모여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강연자들은 그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이 질문에 답하고, 2020년 11월 열리는 프란치스코 경제 콘퍼런스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우리의 목소리는 겸손하지만 현대 경제 패러다임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이 크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에 대한 개념과 구상을 하나로 모으는 도전은 시대의 현실에 대한 생각을 토대하고 경제 변화의 목표를 향한 생각과 행동을 살피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직면한 경제학의 구조적 약점을 해결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의미에서 “새로운(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사회와 경제가 항상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인간, 사회 공동체, NGO, 기업, 정부 및 유엔의 긍정적인 변화와 태도에 주목하여 거시, 중간, 그리고 미시적 수준에서 사회적 및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발전시킨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학의 신(新)과 구(舊)의 비교가 아니다. 경제학은 역동적인 것으로, 개인과 조직, 국가가 필수 및 비필수 상품과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자원과 재능을 활용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경제 패러다임은 현실 세계이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복잡하지만, 삶의 단순한 기쁨과 비극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마카오 선언은 MRI 심포지엄의 의견을 모아 세 가지 전환 플랫폼으로 구성된 아젠다를 도출함으로써 경제학의 패러다임 전환에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전환 플랫폼은 다음과 같다:

1. 보조성의 경제학 (Subsidiarity Economics)
2. 모든 이를 위한 복지 (Wellbeing for all)
3. 공동선을 향한 기업가 정신 (Common good entrepreneurship)

# 1. 보조성의 경제학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서는 인간 개인과 사회 공동체의 경제적 발언권과 다른 권력을 부여하기 위해 보조적 원칙이 부각된다. 보조성의 원리는 중앙기관이 보다 지역단위 수준에서 수행할 수 없는 업무만 수행하는 지원적인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리적 국경의 강화는 지방, 지역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의존하는 다양한 수준의 의사 결정 권한을 창출해왔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이러한 구성단위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서 실제로 협력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지 못하고, 이는 특히 문제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여러 개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경제개혁에 있어서 보조성의 원리는 공동체 정신에 기반한 해결책을 강조하고 커뮤니티의 기존 기관과의 대화와 자발적인 협력으로부터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한다.

보조성은 개인과 공동체의 자유를 향한 원동력이다. Sen (2000)<sup>1</sup>은 개인의 결정이 자기 형성에 가장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자유에는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다. (i) 개인이 제약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설명하는 '통제로부터의 자유'; (ii) 개인의 행동 능력을 설명하는 '권력으로서의 자유'; 그리고 (iii) 행동 의지를 형성하는 '대리인의 자유'. 그러나 개인과 공동체 교육 지원 프로젝트 및 소형 기업을 위한 목적 그룹 투자를 (targeted investments) 통해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보조성은 개인과 공동체의 위한 지속 가능한 생활을 위한 미시 경제학에 중요성을 둔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정부가 자본 시장에 개입할 것을 촉구하여 빈곤층과 소외계층과 같이 배제된 이들로 하여금 자원과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생계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품과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조성은 정부와 NGO 및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도덕적 대리인의 투자 혹은 보조금을 요구하지만, 이러한 자본과 이의 배분은 효과적으로나 의도적으로 보조성의 원칙에 반하는 의존성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보조성의 경제학을 발전시키는 조치

### 1. 신용 협동조합: 소액 금융의 개발

신용기관과 기타 신용 협동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조성의 원칙은 대출과 상환을 통해 필요한 자본 유통을 유지하면서 잠재 기업가에게 자본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소액금융에 대한 최근의 성공적인 경험을 반영해야 한다. 방글라데시에서 최초로 개설된 Grameen Bank는 지역 네트워크에 권한을 부여하고 모든 참여자의 법적 준수를 보장하는 책임 구조에 기반한다. '만약 제가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 승인을 받고 대출을 받는데 제 자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커뮤니티의 다른 구성원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이기에, 저는 대출금을

<sup>1</sup> Sen, A. (2000). Development as Freedom. New York, NY: Anchor Books.

값을 가능성이 더 높게 되는 것입니다.’

소액 대출은 빈곤층을 협력적 경영 안에서 연결시키며 사회와 경제협력을 결합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호혜적 도움은 가끔씩 혹은 산발적이 아닌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 협력의 목적은 함께 일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운명을 개선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경제협력을 실천할 수 있고 경제 활동의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함께 일 할 수 있는 도구이다.

협동조합은 조직 내에서 중요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아시아 신용조합 연맹 (ACCU) 은 회원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422 억 달러를 운영 관리하고 있다. 30 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을 위한 기업을 설립하고 기회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보조성의 원리 안에서 빈곤층을 위한 연대가 어떻게 형성하고 발전되는지 알 수 있다.

## 2. 기술 개발자: 소외계층에게 발언권의 제공

디지털 기술은 인간 개개인이 시장과 새로운 경제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Alipay의 성장과 존재감은 주류 은행 서비스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 발언권과 존재감을 제공하는 디지털 기술 혁신을 견인해 왔다. 그 성공은 다른 곳에서 비슷한 것을 시도하려는 다른 최근의 시도를 위한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 BitPesa는 기업이 아프리카 통화로 지불하고 수령하는 가장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한다는 ‘앞선 시장(frontier market)을 위해 설계된 디지털 외환 및 결제 플랫폼으로 부상된다.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체성은 한 문제인데 많은 어린이들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 서비스와 같은 공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 금융 서비스 자선 단체인 Kiva는 생체 인식 데이터를 사용하여 Sierra Leone의 거주자를 위한 온라인 신원을 생성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출시하여 소액 대출 및 상환을 위한 디지털 Kiva 지갑을 만든다.

## 3. 대기업: 공헌과 투자

대기업은 소규모 커뮤니티가 사회적과 환경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카오 리조트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6개 주요 기업은 2017년 마카오의 태풍 하토 (Typhoon Hato)에 이어 재해 발생 후 도시의 파괴된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 노동력과 물리적 자원을 제공하였다. 2020년 Danone은 글로벌 경제 생태계 안의 농민·공급업체·소거래처에 2억 5000만 유로의 가용 현금 흐름을 제공함으로써 만기연장과 신용대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기업에서 실천되는 보조성의 원리는 직원들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올바른 도구, 교육 및 경험을 갖도록 보장한다. *비즈니스 리더의 사명 [Vocation of the Business Leader]* (2015<sup>2</sup>)의 저자는 회사의 모든 수준에서 자율권 및 의사결정권의 범위를 정의하고 확대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의사결정 책임이 개인이나 단체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sup>2</sup> Pontifical Council (2015). Vocation of the Business Leader.

획득하는 능력 이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의사결정의 결과가 그 책임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4. 투자자: 윤리 혹은 ESG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투자 기준의 활용

보조성의 경제학은 회사의 펀드가 윤리 혹은 ESG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회적 투자자를 필요로 한다. 오스트리아 및 독일 주교들은 투자자들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금융 투자를 우선시한다. 새로운 경제적 역할 모델로서 전반적인 윤리 기준을 개선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이다.<sup>3</sup> 그들은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과 투자 (예: 음란물, 도박, 원자력, 마약 등)에 대해 부정적인 배제 기준 (비 수요)을 적용하며, 또한 최고의 접근법 (수요) 혹은 ‘공동선의 협력’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대담한 문화와 경제의 전환을 견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Steyler 공동투자 펀드와 같은 영향력 및 윤리적 투자 기금은 개인과 커뮤니티가 본질적으로 공동체주의적 기업을 지향하고 정의, 평화 그리고 창조적 무결성을 선택하는 무역과 거래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 모든 이를 위한 복지

COVID-19 팬데믹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 공동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건강은 보편적 공동선의 가장 소중한 요소이며 또한 세계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또한 인류의 대가족으로서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이 바이러스는 국경 조차 그 확산을 멈출 수 없다. 전염병을 막기 위해 국가들은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상호 의존성에 대해 더욱 깨닫게 된다. 우리는 모두 취약하고, 최선 혹은 최악의 의미로든,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집단의 단기적 사고를 버리고 연대를 이루어야 하는 도전에 임했음을 이해해야 한다.

COVID 위기는 빈곤, 자연환경 그리고 미래 세대를 고려하기 위해 현재의 경제 패러다임을 재고하고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 부의 창출의 개념은 자연, 인간, 그리고 사회자본을 포용하도록 확장되어야 한다. 복지에 취약한 이들을 위해 공공복지의 창출이 필요하다.

모든 이를 위한 복지 (Wellbeing for All) 의 이상은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가난한 이들,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 그리고 난민에 관심을 갖고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재 세계의 빈곤은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빈곤은 경제 시스템의 부패와 일부 집단의 이익을 다른 집단보다 유리하게 조작하는 체계적인 실패의 결과인 것이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지도 않고, 더 존경 받지도 않는다.

<sup>3</sup> “협력으로서의 금융투자: 오스트리아 주교회와 오스트리아 수도회의 윤리적 투자지침”, 다음자료에서 출판: Amtsblatt der O<sup>ö</sup>sterreichischen Bischofskonferenz Nr. 74 (1st January 2018); 투자를 통해 세상 바꾸기: 윤리적 투자 지침서. 전문가 연구그룹 “세계경제와 사회윤리”. 독일 주교회의의 ‘교회의 보편적 사명 연구 컨퍼런스’, 본, 2010년 7월.

이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보편적 미덕은 사람 각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본능과 책임에 있다. 서양과 동양 문화에 소중한 자기 형성(self-formation)은 복지를 증진하고 서양과 동양 문화에서 교육 자원을 끌어들이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한다.

모두 이를 위한 복지 (Wellbeing for All)는 인종, 정치적 신념 혹은 피부색에 기반한 편견에 관계없이 소외계층에 대한 전통적인 편견을 제쳐두고 문화와 국경을 넘어 연대의 비전을 말한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이러한 사명을 지키려면, 개인적으로 가깝고 소중한 사람뿐만 아니라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을 실시하는 것을 학습해야 한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타인과의 협력을 위해 자신의 은사와 자원을 공유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함으로써 부당한 사회 구조에서 공모를 뉘우치도록 촉구하는 영적 투쟁이다. 엘살바도르 예수회 사제이자 철학자인 Ignacio Ellacuría는 문명의 희망을 ‘단순히 교환의 관계가 더 공정해지는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의 창조가 아니라 패권과 통치, (재산의) 축적과 (빈부의) 차이, 그리고 소비주의와 거짓 복지보다 더 인간적이고 크리스천적인 기둥 위에 세워지는 새로운 문명’이라고 묘사했다<sup>4</sup>.

Ellacuría의 비전에서 모든 이를 위한 복지는 ‘기본적인 필수품에 대한 만족, 개인 선택의 자유, 개인과 공동체주의적 사상이 보장된 환경을 통해 새로운 생활 형식과 문화 형식을 이루고, 인간과 자연, 타인, 자신, 그리고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를 드러낼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칙서 「찬미 받으소서(Laudato Si’, 2015)」에서 환경과 생태계와의 관계, 빈곤층과 사회 정의와의 관계, 타인에 대한 존중과 형제애의 관계를 고려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대한 필수적인 접근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중국 학자 및 환경운동 주의자인 Liao Xiaoyi는 최근 중국이 추진하는 ‘생태 문명’과 많은 유사점이 있음을 찬양한바 있다<sup>5</sup>.

우리는 ‘다양한 수준의 생태적 균형을 회복하고, 자신과 이웃과, 자연과 모든 생명체와, 그리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Laudato Si’, 2015). 모든 것의 연결성은 모든 것과의 관계에서 그의 유일한 특성 혹은 ‘원융(圓融: 원만하다 혹은 원전하다의 의미)’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공동의 집(지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 도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심포지엄은 파리 COP21 공약에 따라 필리핀의 사례 연구를 통해 국제 협약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일부 국가의 경우 필연적인 잠재적 재앙의 예로 논의했다<sup>6</sup>. 필리핀의 지리적 위치는 기후변화의 취약성으로 인해 치명적인 홍수가 증가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필리핀의 Silliman University는 공공 기관이 환경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사회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제공한다. 이 대학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폐기물 수집의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고, 생물 분해가 가능한 폐기물 유출은 유기 비료를 생산하며, 현지 가정경제를 지원하고, 수목과 광물자원 등 주요 생산품에 대한 파괴를 줄이는

<sup>4</sup> Ignacio Ellacuría (2000). ‘El reino de Dios y el paro en el tercer mundo’, Escritos Teológicos, volume 2, 300.

<sup>5</sup> Liao Xiaoyi는 전 중국사회과학원 교수로서 2008년 대지진 당시 베이징 지구촌이라는 NGO를 설립하였다. 그녀는 지방 공무원과 협력하여 “행복과 조화” Homelands라는 많은 농촌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녀는 또한 전통 문화와 생태계 보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내외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였다. 참조: Angela Moriggi, “Chinese Women at the Forefront of Environmental Activism: Wang Yongchen, Liao Xiaoyi and Tian Guirong,” DEP (Deportate, Esuli e Profughe) Journal, Issue 35, 2017, 206-227.

<sup>6</sup>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the-paris-agreement/the-paris-agreement>



등 환경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태양광과 같은 대체 에너지 형태를 활용하면 조명과 전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Silliman University** 는 교육 및 학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할당할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로 하여금 두 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을 요청한다. 하나는 모든 이의 존엄성을 지키는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연대, 상호존중, 기업가적 진취성과 보조성의 원칙을 개발하는 기초가 되는 공동의 집(지구)을 존중한다는 원칙이다.

## 모든 이를 위한 복지의 개발을 위한 행동

### 1. 기업의 역할: 진보적 사회 기관 되기

모든 이의 복지를 촉진하는 책임을 받아들이는 기업에게 가장 유용한 출발점은 아마 이 분야에서 권위 있는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는 유엔 비즈니스와 인권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다.

국제권리법안(International Bill of Rights)과 ILO 핵심 협약(ILO core conventions)에 열거된 30가지 인권(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 개발권)이 포함된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지구에서 존엄하게 생활하고 일하는 데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으로 말한다. 가장 기본적인 요구로 문화적이고 윤리적인 가치와 규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종교인들에게 “인류의 공동체”는 신앙의 문제로서 「지상의 평화 (*Pacem in Terris, 1963*)」와 「기쁨과 평화 (*Gaudium et Spes, 1963*)」와 같은 교회의 주요 문서에 강조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든 형제들 (*Fratelli Tutti, 2020*)」에서 다시 이 도전을 강조한 바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자신의 권리가 인정되고 보장될 때 창의성과 상호의존성이 발휘되고 인간 본질의 창의력은 공동 이익을 발전시키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우리 현대사회를 들여다보면 과연 70년 전 엄숙하게 선언된 인간 평등의 존엄성이 어떤 경우에도 제대로 인정되고 존중되며 보장되고 향상되는지 의문이 든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형태의 불공정은 인류학의 환원론적 관점의 영향과 인간의 이윤을 착취와 유기, 심지어 모살까지 서슴지 않는 경제모델에 기반한 것이다. 일부 계층의 사람은 부유하게 살고, 다른 계층은 자신의 존엄을 박탈당하거나 경시되거나 짓밟히는 것을 보며 인간의 기본권을 포기하거나 침해당한다<sup>7</sup>.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기업은 인권에 대한 책임 외에도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사회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는 경제를 탐구함으로써 자연을 존중하는 진보적인 사회 제도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다논(Danone)은 이미 선도적인 기업 경제 조직으로서의 특징을 시범적으로 보여 주었다. 프랑스의 기업사명(*Entreprise à Mission*) 모델을 채택하여 종업원, 지역사회, 환경과 고객과 같은 이해관계자에 대해 우선

<sup>7</sup> *Fratelli Tutti*, 2020, 22. [http://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encyclicals/documents/papa-francesco\\_20201003\\_enciclica-fratelli-tutti.html](http://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encyclicals/documents/papa-francesco_20201003_enciclica-fratelli-tutti.html)

순위를 정하였다. 다농의 기업 사명선언서와 생태계 기금은 모두의 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사회 투자의 실질적인 예이다.

복지 중심의 비즈니스는 상호 연결된 방식으로 인간, 사회 및 생태 복지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은 부의 창출 대신 복지의 창출을 기반으로 한다. 부(wealth)는 일차원적인 재무적 용어로서 정의되는 고정된 형식의 주식가치이다. 복지(wellbeing)는 인간과 비인간적 차원의 물질적 그리고 비물질적 측면을 포괄하는 전일적이고 다차원적인 용어로서 정의되는 하나의 생명적 흐름인 것이다.

복지 창출을 향한 기업의 활동은 다면적이고 복잡한 현상이다. 적절한 소유권 구조 및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 기업의 지속성을 위한 경제적 외부화 비즈니스 전략<sup>8</sup>, 조직의 정체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활용된 기술, 생산 시스템, 공급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 투자자, 그리고 순이익의 창출을 단계적으로 다차원적 조치에 의해서만 평가될 수 있다. 투자자들이 기업의 ESG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증가함에 따라 위에 언급한 다차원적 조치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 2. 정부의 역할: '더욱 개방된' 국경관리와 기후 행동

세계화와 국제주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장벽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민 압력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19는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다국적 그리고 초국가적 협력의 필요성을 보여 주었으며, 그 중에서도 개인과 가족의 복지를 위해 더 많은 집중을 요구하는 난민 위기를 주목하게 하였다.

모든 이의 복지를 위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더 개방된' 국경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난민의 곤경에 대처하기 위한 다국적 협력과 실증적 자료에 기반한 공론화에 앞서 보다 더 개방적인 국경 정책과 다국적 협력이 선행되어야 인구이동 논의에 다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이다. 우간다는 통합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을 통해 '더 완화된' 국경으로 난민을 관리하는 방법을 보인바 있다.

난민과 권리가 박탈된 소외계층에게는 복지의 도움이 필요하다. Galbraith (1979<sup>9</sup>)는 '이주는... 빈곤에 대항하는 가장 오래된 행동이다. 이민자들은 원조가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서 선발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목적지 국가에 혜택을 주는 것이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빈곤의 악순환을 깨뜨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 사람의 영혼 깊숙한 곳에 어떤 기형적인 마음으로 이런 명백한 선행을 거부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한다.

189 개의 국가와 지역이 2015 년에 UNCC 기후협정에 가입한 반면, 많은 국가와 지역권이 1 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추진에는 느린 진행을 보여왔다. 전 세계 사람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고 모든 이의 복지를 위해 온실 가스 배출량 줄이기와 정부의 규제 참여에 대해 열망을 가지고 희망하고 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sup>8</sup> 베네딕트 16세 Benedict XVI (2009): "마찬가지로 권한 있는 당국은 공유된 환경 자원을 사용하는 데 따른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투명하게 인식되고 다른 사람이나 미래 세대가 아니라 이를 초래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부담하도록 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진리안의 사랑 50항 (*Caritas in Veritate*, no. 50).

<sup>9</sup> Galbraith, J. K. (1979). *The Nature of Mass Pover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정부의 주요 책임이며 파리 협정에 대한 국제 협력, 그리고 보고 및 책임 담당이 요구되는 것이다.

### 3. NGO의 역할: 교육과 혁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NGO가 빈곤층과 소외계층의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는 해결책을 계획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협업을 통해 다중 이해관계자들과 혁신하도록 요청한다.

교육을 전담하는 NGO와 교육기관은 자신의 가족과 특히 가장 소외 받는 계층의 정의와 복지를 강조하는 전통 지혜를 적용하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유교 경전 「대학」은 ‘큰 가르침은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백성을 사랑하는 데 있으며, 지극한 선에 머무는 데 있다’라는 세 가지 사명을 제시했다<sup>10</sup>.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덟 단계는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이다.

## 3. 공동선을 향한 기업가 정신

윤리적인 소비자와 투자자는 통화와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고 사람과 지구 행성에 공헌하는 실천을 촉진하는 경제 패러다임의 혁명을 위한 길을 닦을 잠재력이 있다.

우리는 불평등, 경제적 파산, 금융 단기 주의, 부패와 착취의 포식적인 자유 시장 관행 등의 실패를 직시하게 된다. 자신의 재능과 자원을 거래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가 사적재인 반면, 사회는 공공재 제공 비용을 분담할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즉, 비 배제성 및 비경합성의 장점) 덜 분명한 방식으로, 사회 정의, 집단 개발 그리고 생태 보호로 느슨하게 명명될 수 있는 것의 대의를 가지는 한, 그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민간과 공공재와 달리 공동선은 즉각적인 거래와 관계를 넘어서 모든 이에게 공동의 이익을 주기 위해 취해진 경제적 행동을 포함하므로 모든 인간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시장 지향 경제는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탐욕과 과소비에 대한 본능을 억제하고 모든 이를 위해, 특히 소외된 이들과 투자와 소비에서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의 이익을 위해 투자하고 소비하는 것을 지향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공동선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의 결정은 근로자, 고객, 공급업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독점적으로 사리사욕적인 행동은 공공 부리를 위한 집단 행동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자신만의 이익 추구의 문제를 일으킨다. 독점적인 이기적인 행동은 공공의 부를 위한 집단 행동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무임승차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경제와 기업의 목적은 자연 자산과 부채, 물리적, 금융자본, 건강하고 교육받은 사람들, 그리고 경제 행위자들 사이의 신뢰할 수 있는 관계 등 포괄적인 의미에서 부를 창출하는 것이다. (즉, 이익의 공동체적 이해 안에서) 금융과 경제 분야의 조치에 대한 제한된 관심은 이익의 의미를 왜곡하고(즉, 이익 극대화의 진정한 의미) 부의 창출에 대한 결정을 오도하게 된다.

지속 가능한 부를 창출하는 것은 인간에 초점을 맞추고 자연을 지속하게 함으로써 (물질적)

<sup>10</sup> The Great Learning, (trans. Muller, 1992). 在明明德、在親民、在止於至善。

자원의 성장을 초월하는 경제생활의 진정한 목적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주류 경제학은 자연의 본질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못했다. 경쟁적인 경제 당사자들이 결정한 시장 가치를 바탕으로 환경적 고려 안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평가할 것을 제안한다. 그럼에도 자연의 할당 문제(즉, 공정한 밸런스의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적인 해결책은 없다. 자연과 사회와 관련된 결정과 정책은 정성적인 것이어서, 다각적인 고려와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관리를 필요로 한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서 부의 창출은 모든 자연 자원과 생태계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 지속 가능한 부의 창출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지속 가능한 부는 조직의 재무적 성과, 경영과 지배구조 정책 및 관행의 질, 그리고 관련 공공재와 '공공의 악재 (생태적 및 환경적 측면에서)'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조직의 목적은 그 자연 자산과 부채, 물리적 및 화폐적 자본, 건강하고 교육받은 이들, 그리고 경제적 당사자들 사이의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 초점을 두고 책임을 지는 것이다.

공동선을 향한 기업가 정신은 기업의 (도덕적) 책임에 관하여 다음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활성화시킨다.

- **책임의 주체**(‘누가 책임을 지는가?’)는 ‘도덕적 행위자’로 간주되는 기업이며, 이는 그들이 "기업 행위자"인 한도이다. (Coleman 1991).
- **책임의 내용**(‘무엇이 책임인가?’) 부를 창출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 **책임의 수취인**(‘누구를 향한 책임인가?’)는 주주와 다른 이해관계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 미래 세대와 자연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별 기업 수준에서 ESG 관리의 정교화, 경영관리의 일관성 유지, 그리고 관련 성과 보고가 증가하면, 이를 통해 GRI와 같은 다른 회사들은 제조와 공급사슬 관리의 기업 투명성을 촉진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B 영향 평가는 전 세계적으로 4,000개 이상의 회사에서 인증된 B 기업 혹은 B 기업 그룹이 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sup>11</sup>. 이러한 기업은 근로자, 고객, 공급업체, 지역 사회 그리고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선이 우선성을 가지게 됨은 현대의 소비 중심 사회와 그 소비를 위한 원자재 제공과 폐기물의 흡수와 같은 (예. 온실가스 배출) 지구적 역량이 양립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새로운 경제 프레임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마케팅 기능에 있어서 생산자의 상상력을 확장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새로운 프레임이 역사적으로 소비자 사회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의 요구와 미래의 시민들의 요구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사회적 희망을 장려하고 기업가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

<sup>11</sup> B Corp 인증은 감사인과 엄격한 합격-불합격 벤치마크 비용 없이 기업에 표준화된 독립 평가를 제공한다. B Corp은 의사 결정에서 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회사 정관 변경과 같은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제정해야 한다.

공동선을 향한 기업가 정신은 소비와 마케팅 체계에서 "무언가를 완전 하거나 완벽하게 만드는 행위"(옥스퍼드 사전)로 정의되는 컨슈메이션 (Consummation)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합니다.

컨슈메이션이란 마케팅 주도적인 소비를 세 가지 중요한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1. 컨슈메이션은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 브랜드의 위치에서 사회에서의 근본적인 실존적 목적을 전달하고 옹호하는 브랜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2. 컨슈메이션은 소비자의 요구를 해결하거나 창조함으로써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고안하는 것으로 부터 더욱 넓은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동시에 충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를 상상하고 설계하는 새로운 형태의 혁신을 촉진한다.
3. 컨슈메이션은 주로 브랜드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도록 영감을 주는 관련 메시지의 보급으로의 이동을 예고한다.

컨슈메이션에 영감을 받은 마케팅은 기업에서 창의적이고 존경받으며 영향력 있는 긍정적인 힘으로서 그리고 "완벽한 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일부로서 마케팅의 역할을 새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더 높은 수준의 우수성으로의 전환을 주도하여 사람들의 욕구, 그리고 이를 충족시키는 프로세스, 제품 그리고 서비스의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선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기업이 공정성과 연대를 촉진하는 시스템을 지원하고 정의에 따라 행동할 도덕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혜의 전통은 모든 사람과 공동체의 최고의 선이 에우다이모니아(인간의 번영)를 얻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유교를 신봉하는 기업가는 유교적 가치와 원칙을 사용하여 비윤리적인 부와 이익을 피하고 문화를 육성하고 사회에 좋은 것을 가져오는 법을 배운다. 그는 학자의 정신과 상인의 재능을 겸비한 사람 중심의 인물인 것이다. 포콜라레 운동이 지향하는 친교의 경제는 기업이 인간 번영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연대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

이익은 사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일부 이익은 사회 발전에 투자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버넌스와 책무성을 부여하기 위해 일부 회사는 조직 구조에서 이익 분배를 제한하기도 한다.

사회적 기업 마크(B 기업 인증)<sup>12</sup>는 현재 10개국의 기업에 대해 49%로 수익 분배를 제한하고 나머지는 조직의 사회적 목적 활동에 투자하는 기업을 인증한다. B 인증 기업(B Corp)은 또한 승인된 회사가 이사회 의사 결정에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한 약속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공동선을 우선시하는 것은 개인을 넘어 다른 사람의 선을 향한 영적 전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MRI 심포지엄은 경제 주체가 공감, 이타주의, 자연과 미래 세대에 대한 존중의 미덕을 증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혜와 영적 자원을 논의 했던 것이다.

---

<sup>12</sup> <https://www.socialenterprisemark.org.uk/>

# 공동선을 향한 기업가 정신의 개발

## 1. 이사회역의 역할: 투명한 거버넌스

공동선에 기반한 기업 거버넌스에는 투명성, 규정 준수 및 이해 관계자에 대한 공공의 책임과 내부 리더십 역량, 균형, 약속 그리고 무결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공동선을 위한 검증 가능한 외부 윤리 기준이 기업 의사 결정에 통합되도록 거버넌스 체제와 실행을 뒷받침해야 한다.

기업의 법적 이사는 기업의 행동과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들은 주주를 포함한 다른 모든 이해 관계자와 구별되는 회사의 법인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사는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수탁자의 의무 외에도 조직과 조직이 사회 전체, 미래 세대 및 자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윤리적, 법적 책임을 지고 비즈니스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공동선을 우선시하면 공공과 민간 부의 창출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 책임은 이사회가 경제, 환경 그리고 사회적 거버넌스 자본과 같은 총 가치 창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한다.

## 2. 투자자의 역할: 윤리와 ESG 에 대한 헌신

자금의 투자는 윤리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것이다. 부는 제도와 사람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금융 투자의 세계는 수요와 공급 간의 상호 작용을 지배하는 규칙을 크게 따르게 된다. 투자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고, 특정 시장과 공급업체를 투자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해당 부문에서 수요가 제거된다.

FCLT 글로벌(Focusing Capital on the Long Term)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의 ESG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문제에 대한 정보를 찾는다. 단점에도 불구하고 ESG 데이터를 투자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것은 펀드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재무 성과를 제공하는 데 유용한 도구인 것이다. 그린 워싱 목적이든, 진정한 약속이든, 아니면 둘 다이든, 투자와 펀드 매니저는 기업의 펀드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때 ESG 데이터 사용을 늘리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ESG 목표에 진정으로 전념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투자자가 ESG 전략을 사용하는 근거는 회복력과 생산성을 구축하여 수익성 있는 성공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 관점의 매력이다. 경쟁 전 부문 이니셔티브는 공유된 관심 혹은 "공유 가치 창출"이 탄력성과 생산성을 위한 협력을 가져오고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 4. 일반 경영관리의 역할: 공급 사슬망 에서 사회 정의를 위한 행동

기업의 책임은 비즈니스 리더의 개별 책임을 보완하지만 대체하지는 않는다. 조직 관리자는 정책이 종업원과 공급업체에게 인권, 사회 정의 그리고 생태계 보호를 존중하도록 지침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이행 원칙(UNGP<sup>13</sup>: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011)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30 개의 인권과 함께 글로벌화한 다원적인 세계에서 기업과 경제 윤리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요구 사항과 관련이 있다. UNGP의 보고 체계는 당사자 기업을 위한 이행 지침과 내부 감사인 그리고 외부 검증 제공자를 위한 검증 지침의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지원된다.

## 5. 마케팅의 역할: 소비에서 의미 소비의 완성(컨슈메이션) 까지

마케팅 관리자는 소비를 유도하는 것에서 사람들의 필요, 요구, 욕구, 그리고 이를 충족시키는 프로세스, 제품과 서비스를 새로이 하는 컨슈메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마케팅의 역할을 재고할 것을 권장한다.

## 6. 정부의 역할: 규제와 과세 행정

정부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규정과 조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을 통해 공익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는 "책임의 주체"이다. 환경에서 발견되는 미세 입자와 초미세먼지가 공중 보건에 위험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있다. 탄소 가격 책정 체제에 따라 정부는 엄격한 규정을 채택하여 오염 기업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따라서 비즈니스 활동의 진정한 비용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염 기업에 부과금을 부과하고 모금된 자금을 오염의 역효과에 영향을 받는 지역과 국가의 지역사회 의료 시스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 할 수 있다.

정부 간 조약은 현재 소규모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고 재정적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정당한 세금 집행을 시행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양자 조세 협약을 체결하는 국가의 모델인 OECD 모델 조세 협약은 국경을 넘는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조세 관련 장벽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양국 간 조세조약 협상 및 적용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탈세와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OECD/G20 협정에 따라 135 개 이상의 국가가 조약남용에 대응하고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 기준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 공동선을 향한 기업가 정신은 관할 구역 간의 재정 조정 및 집행 강화를 요구하지만 진행 속도는 느린 형편이다.

이제 결정적인 10 년으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인류와 산업을 탄소 제로 경제로 이끌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에서 크게 벗어나도록 이끄는 독특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순 탄소 제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시민과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이상이다. 기존 경제

<sup>13</sup> <https://www.ungpreporting.org/framework-guidance>



패러다임을 넘어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수준에서 기후 위험 완화를 위한 혁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지향해야 한다.

## 결론

### 어려운 전환을 준비하라

이 선언문은 글로벌 경제의 전환을 위한 세 가지 플랫폼을 식별한다. 현재의 경제와 기술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칙서 「찬미 받으소서(Laudato Si', 2015)」에서 개인과 지역사회 차원에서 회심의 길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공동체와 구조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단계는 개인의 마음의 변화를 공동체의 변화와 구조의 변화로 바꾸는 단계를 명명하는 것이다. “제도를 개혁하고 조정하며 모범 사례를 촉진하고 과도한 압력과 관료적 관성을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정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찬미 받으소서, 181항)

MRI 심포지엄의 한결 같은 논점은 마음의 변화(메타노이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현재의 구조를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필요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개인 차원의 그 마음의 변화는 공동체와 기관으로 흘러야 한다.

공동체, 전통, 그리고 제도의 구축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기후 변화 재앙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소위 결정적 10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긴급 조치로 옮겨야 하고 가장 불리한 환경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모든 새로운 패러다임은 단 한발의 실버 불렛(은색 총알, 단순한 해법에 대한 허상의 의미)이 아닌 변화를 위한 상호 작용 운동의 복잡한 그물이 되어야 한다.

희망의 놀라운 징후가 있다. 여기에는 공동체의 경제 협동조합의 사업 운영 원칙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자치 정부, 윤리적 투자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사회 자금 지원이 있다.

*공동의 집을 보호해야 하는 긴급한 과제에는 모든 인류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고 통합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관심이 포함됩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랑에 찬 계획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뉘우치시지도 않으십니다. 인류는 여전히 공동의 집을 짓기위해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찬미 받으소서, 13 항)